

산지의 보전과 개발

— 산림청 산지계획과장 曹連煥 —

우리나라는 국토의 65%가 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산악국가』이다. 국토면적에서 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본이나 핀란드와 비슷하고 스위스나 오스트리에 비하여 월등히 산이 많은 나라이다. 한국인으로 일생을 산다는 것은 곧 산과 더불어 평생을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일부의 국민들은 산악국가에서 살고 있으면서 평지국가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국토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산지는 그대로 보전하고 극히 일부분에 속하는 평지를 개발하여 주택과 공장들을 지어야 한다는 생각이 그것이다. 산을 우리의 국토환경이나 경제생활과 연관하여 생각하지 않고 보전의 대상으로만 인식하므로써 어떤 형태로든 산지를 개발하는 것은 부정적이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 세계에서 3번째로 높은 인구밀도를 가지고 있으나 주택, 공장 등 도시적용도의 토지는 국토의 4%에 불과하여 더욱 비좁게 살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산업의 발달과 경제발전 및 인구의 증가등으로 새로운 토지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므로 증가되는 토지수요를 어떻게 충족하느냐 하는 것이 국가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간척사업등 바다를 매립하여 국토를 확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부득이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산지를 개발하여 증가되는 토지수요에 대처하여야 할 실정이다.

정부계획에 의하면 인구증가가 정지될 것으로 보는 2020년까지 5,000-6,000km² 정도의 토지가 필요하며 이 중 40% 정도인 2,000-3,000km²는 산지를 전용하여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10년간 900km²의 산지가 도시화, 산업화에 따라 필요한 도시, 공단, 주택, 교육문화, 휴양 레저용품등으로 전용된 것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규모는 아니라고 하겠다.

그러나 무분별한 산림훼손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는 산지를 마구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도시화, 산업화에 따라 개발이 불가피한 산지는 개발하되, 보전되어야 이를 위하여 더욱 철저히 보호·관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산림청에서는 현재 경사도와 입목도등 물리적기준에 의하여 구분되어 있는 산지이용체계를 산지의 기능과 위치 및 목적에 따라 재편하는 작업을 추진중에 있다. 국토의 65%를 차지하는 산지를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여 국토경제력을 신장시켜 나가며 쾌적한 삶의 터전으로 가꾸어 나갈 것이다.

이제 산지가 전용되고 개발되는 현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아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평지국가적인 사고에서 산지국가의 국민적 시각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국토가 좁다고 원망하거나 산이 많아 쓸 땅이 없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좁은 국토를 넓게 쓰는 지혜와 안목을 가져야 한다. 무질서한 토지를 공급하기 위하여는 우리의 국토 현실로 보아 일정규모의 산지개발은 불

가피하며 이는 좁은 국토를 넓게 쓰는 지혜로운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를 위한 지혜로운 국토활용의 방안이 무엇인지를 열린 마음으로 더 멀리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고 본다. <동아일보 1995. 10. 14 전재>

송이버섯생산증대방안

산림청 임업연구원은 송이생산증대를 위해 하층식생정리, 낙엽·부식층제거, 물주기, 종이컵 씌우기 등 환경관리에 의한 송이증수 실험결과 최저 5배에서 최고 20배까지 증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산림청 임업연구원은 송이발생에 영향을 주는 기상인자인 기온 및 지온, 강수량, 일조량, 강수일수와 연관성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당년도 9월중 강수량이 송이발생량을 좌우하는 중요한 인자로 나타났다
- 따라서 살수에 의한 송이발생량을 조사하기 위하여 경북 문경 (1ha), 경

남 거창 (3ha) 을 대상으로 9월 4일 ~9월 30일까지 2일 간격으로 1㎡당 10ℓ의 물을 호스와 스프링쿨러를 이용하여 균환주변에 살수한 결과, 문경은 5배, 거창은 약 20배의 송이 증수효과가 나났으며, 품질면에서도 중량, 갯직경, 자루길이 등 10~30% 향상되었다.

- 송이산의 토양 특성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9월중 2일 간격으로 1㎡당 물 10ℓ를 살수함으로써 송이증수에 의한 농가소득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므로 이를 적극 권장한다고 밝혔다.
- 이밖에도 컵씌우기(송이발생 즉시 3~4일간 씌움)는 약 2배, 하층식생정리시는 1.4 배 각각 증수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